

레이와-새로운 시대의 시작

일본에서는 천황이 즉위할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합니다. 레이와 시대는 2019 년 5 월에 시작되었으며, 이름은 이 입체 모형에서 묘사되는 유명한 ‘매화 연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연회에서 읊었던 32 수의 와카(일본 전통 정형시)는 자세한 내용을 만엽집(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일본 고전 와카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호명의 두 한자 ‘레이(令, 하여금 령/영)’와 ‘와(和, 화할 화)’는 만엽집의 서문에서 따왔습니다. 두 번째 글자인 ‘와(和)’의 의미는 명확한데, ‘고요함’ 또는 ‘조화’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글자인 ‘레이(令)’는 현대 일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휘’ 또는 ‘명령’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답다’ 또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자를 따온 만엽집의 서문에서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와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카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초춘영월, 기숙풍화(初春令月, 氣淑風和)

(초봄의 영(令)월,

공기는 맑고 바람은 평온하다.)

이 구절은 분명 매화꽃의 개화뿐 아니라 서문의 작가가 바라본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 와카가 다양한 외국 문화를 받아들였던 다자이후에서 지어졌다는 사실도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레이와의 글자에는 낙관적인 사조(思潮)와 견고한 국제 관계, 국제화, 그리고 외국 문화에 대한 경의를 내포하고 있는 일본 사회와 앞으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